

2017/01/12(목) 전체회의 중 논의된 내용 요약

참석: 김현 교수님, 김정화 교수님, 강혜원, 김미정, 김바로, 김사현, 김지선, 김현승, 류인태, 서동신, 서소리, 장동룡, 장원석, 차서연 (14명)

※ 통합 결론(김현 교수님)

- 클래스별 접근을 요구한 게 아니다. 우리가 잘못 접근했다. 메인(중심)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먼저 집중해라. 이는 아날로그적 성격에 가까운 것이다.
- '대표항목'(cf.아래)에 대해서는 인물이건 물품이건 뭐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. 거기에 관계성의 내용이 함께 담겨야 한다.
 - * 대표항목 : 민족기록화 106건, 승탑비문 47건, 궁중기록화(복식 기준) 100건, 한글고문서 xx건(전시자료 155건 중 스토리 기준으로 선별 예정)
 - * 관계성 중심!!
- 대표항목과 연계된 여타의 노드들은 glossary일 뿐이다. 층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.
- 대표기사(핵심스토리기사) vs. glossary 기사
- 대표기사는 스토리텔링 자원으로서의 서술과 체제 및 관계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, 글로서리 기사는 안내 위주로만 제시되면 된다.
- 나머지는 세부 데이터종류별(지도, VR 등 멀티미디어)로 필요에 따라 레고 블록처럼 모듈로 집어넣으면 된다. 예컨대 지도에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, 즉 하이퍼링크로 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한다.

※ 다음주 회의 : 구체적인 대표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(과제결과물을 토대로) 팀별 정리된 포맷을 발표
cf. 연표로도 활용 가능한 것을 고려

=====

※ 위키기사 관련 원칙

- > 얇은 지식을 넣는 기사는 생성될 이유가 없음(김정화 교수님)
- > 우리는 기존 학계에서의 표절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.
- > 추가 정보가 없다면, 새로운 노드를 만들 필요 없다. 단지 프로퍼티로만.
- > 일단 새로운 노드로 끌어왔다면, 기존의 웹에 있는 자세한 정보를 그대로 끌어오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안 된다.
- > 노드에 대한 접근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칭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.
- >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만들지 않으면, 아예 잘 정리된 곳의 링크를 정밀하게 잘 정리해 줘야.
- > 우리가 추가한 정보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,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줘라.
- > 외부 링크도 우리의 온톨로지 속에서 담아낼 방법을 찾자. 링크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속성도 구별이 되도록. 즉, 그 링크로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식
- > 본문 상세정보보다 레퍼런스 정보가 더 많은 것을 기본으로 예상한다.
- > 텍스트는 쓸수록 문제를 야기한다. 꼭 필요한 것만 써라.

-> 문단이나 문장은 물론, 단지 구문 정도일지라도 외부에서 참조한 것이면 꼭 레퍼런스를 달아라.

-> 풍부한 하이퍼링크.

=====

1. 인용 관련 :

- > 적절한 선례가 없는 비격식 자료들에 대한 인용 방침을 마련해야 함.(예: 개인블로그)
- > 다른사람이 우리 자료를 인용 시 어떻게 참조 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룰을 안내해야 함: 개별 네트워크그래프 하나, 사진 하나까지도.
- > 인용·참조한 웹정보의 확인날짜를 기록해 놓되, 표시는 통일적 약어로 일관되게 정해서 진행할 것. 나중에 일괄변환이 가능하게.

2. 인물 : 동음이의어 표기방식(타이틀명)

- > 위키기사의 타이틀은 최대한 심플하게.
- > 나중에 선별된 전체자료 검토 후, 식별자로 할 수 있는 명칭들을 속성으로 처리하되, 속성 정보는 최대한 상세하게.
- > 예전 민족문화대백과 작업의 경우, 한글 기본으로 하되 동음이의어는 1,2,3... 숫자를 붙였음.

3. 단체 : 목차의 표준화, 틀의 표준화 / '기관단체'와 '공간'의 구분 방안

- > '기관단체'와 '공간'의 구분 : 향토문화전자대전 태깅에서 수도 없이 논의됨.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에 대한 문제임. 일단 미리 정하지 말고, 이 문제에 유의해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, 결과자료를 보고 최종 결정하자.

4. 사건 :

- > 이벤트는 중요한 모델.
- > 이벤트 정보를 모아서 전자연표를 만들수 있어야 함. 시간적 정보를 약속된 틀 속에서 기입 필수. cf. time span 기법 (예) edm:TimeSpan.
- > '우리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다.'라는 원칙을 감안하면, 항목을 뺄 수도 있다.

5. 공간장소 : 회의시간상 논의 생략

6. 개념 : 회의시간상 논의 생략

=====

※ 김정화 교수님

인문지식+테크놀로지

* 민족기록화 : 회화(미술)로서의 가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.

* 민족기록화 이후에도 정부 주도하에 동일화가들이 표준영정도 제작함.

- * 미술계에서도 디지털출판에 관심많음. 전작도록(全作圖錄) 제작을 위한 표준 데이터 구축 중.
- * 작가에 대한 자료 찾기 힘들.

- *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: 지식의 확장 제한.
- * 함께 만들어지는 정보 : 지식의 연계에 대해
 - 스토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된 거 아닌가? 다른 지식이 연계될 수 있는지?
 - KCHDM(Korean Cultural Heritage Data Model)에서는 CIDOC-CRM의 5개 클래스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도해 봄
 - 기술적인 활용성 입장에서 모든 다양한 외부 지식자원들을 끌어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
- ▶ 김현 교수님의 이견 : 우리 연구과제는 Federated search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싶다. 우리는 틀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. 다만 결국은 4종 소재(한글/복식/민족/승탑)의 특수성을 가진 클래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할 것이다.